

제주 전래 농기구에 관한 일연구

김 동 섭*

차 례

1. 머리말
2. 전래 농기구의 종류와 변화
 - 1)파종구 2)육성·수확구 3)운반구
 - 4)탈곡구 5)도정구 6)저장구 7)기타
3. 마무리

1. 머리말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제주에 삶의 터전을 잡은 제주인들은 바람부는 땅을 개척하고 격랑의 역사를 이겨내면서, 제주만의 전통 문화를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삶의 모습을 물려주었다. 이들을 통해 제주는 일찍부터 '민속(民俗)의 보고(寶庫)'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특이한 세시풍속과 마을마다의 민간신앙과 신화, 전설 등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 이들 전통 문화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어져 와 제주만의 독특함으로 자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자료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와 현대화는 전통적인 삶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농경과 어로로 이루어졌던 생업은 관광과 감귤 농업으로 바뀌었다. 더구나 조, 보리라는 주곡 경작(主穀耕作)의 전통적인 농경의 양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변했으며, 거기에 사용되었던 각종 농기구들도 하루를 달리하면서 사라져 가고 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제주인들의 전통적인 삶을 온전하게 이해할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연구원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잃어버릴지도 모를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러한 때에 전통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했던 농경(農耕)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주인들이 사용해 왔던 농기구들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의식주(衣食住)인데, 이 기본적 생활은 그 지역이 갖는 지형학적 위치나 역사 및 인적 자원 등 지역성과 역사성을 내포하면서 그 지역을 특징화시키고 규정짓는 잣대가 되는 독자성(獨自性)으로 나타나곤 한다.¹⁾ 특히 식생활(食生活)은 주식(主食)이나 부식(副食) 할 것 없이 농경이나 어로 등 생산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데, 조나 보리로 이루어진 주식(主食)을 제공하였던 농경 생활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던 농기구는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토양을 경영하여야 하였기에 지역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적인 차가 있긴 하지만 표토층(表土層)은 암반이 깔려 있고 토질(土質)이 부박(浮薄)하거나 작은 돌맹이가 깔려 있어 경작 여건으로는 매우 나쁜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되는 작물들도 대부분 이러한 조건에 알맞은 종자를 선택하였다. 옛 기록의 토산조(土産條)에는 벼, 조, 보리, 모밀(메밀), 콩 등이 산출되었다고 하는 데, 언제부터 재배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곡물류는 '6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1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으므로, 발농사는 자연히 생업의 터전이 되었고, 합리적으로 경작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도 발달하였다.²⁾ 크게는 노동 집약을 위한 협업 관행과 작게는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

1) 농경(農耕)은 그곳이 갖는 지형학적 특징과 토양, 기후, 작물, 노동력 등 여러 조건으로 특징 지워지게 마련이다. 金東燮, '남태와 돌태', 『生活用具』6호(사단법인 질풍문화연구회, 1998), pp23-33.

2) 자급자족의 농경은 영세성을 면키 어려웠으나, 점차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환금작물 재배 농경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특정작물 재배로 바뀌었다.

한 농기구의 이용도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제주인들이 사용했던 농기구를 이해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의도로 쓴 것이다. 제주 전래 농기구는 크게 파종구, 육성·수확구, 운반구, 탈곡구, 도정구, 저장구, 기타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도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하고자 한다.

2. 전래 농기구의 종류와 변화

제주도의 밭은 대부분 적은 양의 토양에 자갈이 깔려 있고, 강우량은 많지만 지질 관계로 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어촌 마을 해안가에 이르러 솟아나기 때문에 자연히 밭이 많게 마련이다.³⁾ 이러한 조건 속에서 생산되는 식량 작물은 보리 종류에 나뭇, 대땃, 맥주땃 등이 있었고, 잡곡으로 조(粟), 모뭇(메밀), 두류(豆類)에 콩, 팥, 녹두 그리고 고구마, 쌀 등이 있었다. 나뭇은 '70년대 초반까지도 제주도의 주요한 작물로서 도민의 주식량(主食糧)이 되고 있었으나, 맥주땃은 환금작물로 재배되기도 했다. 조는 제주도 잡곡중 주작물이었으며 동절기(冬節期) 도민의 주식량이 되어 왔었다. 그러기에 도내 어디에서나 재배하였으나 환금작물인 고구마가 들어와 요사이의 거의 짓지 않게 되었다. 모뭇(메밀), 산땃, 팥, 피 등 잡곡은 주로 중산간촌에서 재배되었는데, 윤경법(輪耕法)이 없어지고 산촌에서의 경작이 줄어들면서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동·하절기의 주식으로 사용할 조와 보리가 재배의 중심이 되었다. 절기(節氣)로 소만(小滿:5월 20~23일)이 되면 산땃을 파종한다. 하지(夏至)가 되면 조를 파종하게 되는 데 이 때를 전후하

3) 제주도의 토지이용 상황을 보면 '72년도 총 면적 181,991ha 중 밭이 27.2%, 논이 0.6% 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의 농업은 다 밭농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 밭갈이를 먼저 해 두면 농사가 쉽다. 소서(小暑:7월 6~8일)가 되면 하절기(夏節期) 작물을 파종하는 일로 눈코 뜰 사이가 없게 된다. 이시기에 모뭉(메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작물을 파종해야 하므로 농가에서 가장 분주한 시기가 된다. 9월절을 전후해서 가을 추수가 끝나면 밀과 보리 파종을 준비해야 하고, 10월절이 되면 농가에서는 돛통이나 쇠왕(우마간)에서 '진거름'이라 부르는 거름을 꺼내어 보리를 파종할 밭에 뿌리거나 파종할 보리씨를 묻어 두기도 했다. 보리 파종이 끝나면 1년 농사가 다 끝났다고 한다. 이때부터는 지붕이고 땀감을 하는가 하면, '맥칭'을 차려 맥을 짜거나 농기구 등을 보수하는 데 다음해 음력 정월부터 여자들의 '보리밭 검질매기'가 시작되어 다시 한 해가 시작된다.

이러한 농경세시는 재배하는 작물과 노동력 등에 의해 구별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인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농기구가 이용되었다. 밭농사에 사용되었던 이들을 농경의 순서에 따라 농사에 직접 참여하였던 어른들을 주요 채보자로 선정하여 '96년도 1년간에 걸쳐 제주도 4개 시군(市郡)의 산촌, 중산간촌, 어촌을 안배하여 조사지를 선정하고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⁴⁾

1) 파종구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로 이루어진 곳⁵⁾에서 농사를 지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만 했었다.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그 전통은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다. 척박한 땅을 일구는 데

4) 金東燮 外, 『濟州道の 農器具』(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7).

5) 돌, 바람, 여자가 많았다는 것은 돌이 없고, 바람이 없었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많았던 것보다 농경(農耕)에 적합하지 못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썼던 '따비', '벤즐레'를 밀감 밭에서 쓰도록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다.

(1) 따비 — '때비'라고도 했는데, 척박한 땅을 일구어 농지를 개간 할 때 주로 사용한 것으로, '웨따비', '쌍따비('남따비'라고도 한다)' 2종으로 구분된다. 4~5kg정도 무게의 '웨따비'는 '양주머리', '무쿨('몽쿨'이라고도 한다)', '발받침', '따비쇠'가 전체적으로 T字형을 이루고 있으며, '따비쇠'가 주걱처럼 생겨 주걱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잔자갈이 많은 서쪽 지역(한림, 애월)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8~9kg정도 무게의 '쌍따비'는 '즈록(숫6)', '발디딤(버덕)', '설칫', '탕개무쿨(가달)', '따비쇠(요리)'가 전체적으로 포크나 코끼리 이빨처럼 생겼다고 하여 포크형, 코끼리 이빨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요사이는 장지(葬地)에서 광중(塲中)을 팔 때나 감귤 나무의 뿌리를 캐낼 때 등에 사용함으로 폐차장(廢車場) 등에서 쇠를 구하여 변형시켜 만든 '쇠따비'가 여러 형태로 쓰여지고 있다. 작업을 하면서 불렀던 소리가 남원, 안덕, 대정 등지에서 '따비질 소리'라 하여 전해오고 있기도 하다.⁷⁾

(2) 벤즐레 — 땅을 일굴 때 깊이 묻혀 있는 돌을 켤 때 썼다. '무쿨'에 '따비쇠'를 끼운 '웨따비'의 형태로 '쌍따비'와 '웨따비'를 합쳐 만든 것처럼 보인다. '양주머리', '무쿨', '발받침', '벤즐레대'로 구성되어 있다. '웨따비'와 함께 서쪽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벤즐레대'로 사용하는 목재는 강한 나무인 가시나무를 주로 사용하였다. 오늘날은 '따비'와 같이 장지(葬地)에서 쓰여지고 있다.

(3) 쟁이 — '쟁이'라고도 하는데, 흙을 파거나 돌을 켤 때 등 다용도로 썼다. 또 '꼰'을 칠 때나 쟁기로 갈 수 없는 담 밑을 팔 때, 흙덩이를 부수는 데에도 쓰였다. '즈록', '날', '날목'으로 구성되었는데,

6) 高光敏, '제주도 쟁기의 형태와 발갈이법', 『韓國의 農耕文化』(京畿大學校 博物館, 1988), pp110~111. 제주도 동쪽 지역인 구좌(舊左), 성산(城山) 등지에서 주로 불렀다고 한다.

7) 조영배, 『우리고장전래민요』(도서출판 예술, 1996), p.355.

‘밭’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쟁이, 목쟁이, 섬쟁이, 섬목쟁이, 약초쟁이, 삼쟁이’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수명은 3~6년 정도이며, ‘곽지폐총’에서 ‘쟁이밭’로 보이는 것이 출토된 바 있고⁸⁾, 김녕리 입산봉(笠山峰)에서는 ‘돌쟁이’가 출토된 것⁹⁾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까지도 농가(農家)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다.

(4) 쟁기 — ‘잠대’¹⁰⁾라고도 한다. 소나 말의 힘을 이용해 밭갈이를 할 때 흙을 일구는 데 썼다. ‘쟁기’는 일字形(一字型)의 ‘성애’에 손잡이인 ‘양주머리’, ‘보섭’을 꽂도록 된 ‘무쿨’이 경사지게 박혀 있다. ‘무쿨’과 ‘성애’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같이되는 깊이를 조절하도록 된 ‘설칫’이 그 중앙에 가로로 박혀 있다. ‘성애’ 끝에는 ‘돌뽕이빨’이 있어 ‘명애’, ‘숨비줄’, ‘오리목’으로부터 이어받은 축력을 쟁기에 연결되도록 하였다.¹¹⁾ 또 ‘저릿쇠’라 하여 두 마리의 소를 앞뒤로 세워 축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¹²⁾ 쟁기의 재료는 가시나무, 느티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쉰 나무를 사용하였고, 수명은 일정치 않으나 대략 5~7년 정도 였다. 소 한 마리가 하루동안 가는 밭의 양을 ‘헌쉐역’이라고도 한다. 밭이 작거나 소나 말이 없을 때는 사람 2인이 끌기도 하였다. 밭을 갈면서 주로 혼자 불렀던 ‘밭가는 소리’, ‘마소모는 소리’가 전해 오고 있다.¹³⁾ 경운기가 급격히 보급되면서 사라졌지만, 오늘날에도

8) 濟州大學校博物館, 『郭支貝塚』(濟州大學校博物館, 1983), p.45.

9) 이청규, 『濟州道 遺蹟』(濟州大學校博物館, 1986), p.23.

10) 성산, 표선, 서귀 등 정의현(旌義縣) 지역에서 주로 일컬어지고 있다.

11) 경험이 없는 쇠는 ‘쟁기질’에 동원해 쓸 수 없었는데, 이 때 ‘곰돌’ 혹은 ‘쇠 가르치는 돌(무게는 20~57.5kg)’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 ‘쟁기질’을 가르쳤다.

12) 강원도 홍천에서는 ‘저리쟁기’라 하여 소 두 마리를 옆으로 세워 축력을 이용했다고 한다. 李俊錫, 「저리농경의 기술적 의의와 노동조직의 양상」(안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32~72

13) 조영배, 앞의책, pp.172~176, p.380.

비탈진 작은 밭에는 쓰이기도 한다.

(5) 곰배 — ‘곰배, 곰방메’라고도 하는데, 밭갈이를 한 후 덩어리진 흙을 부술 때 썼다. 손잡이는 길고 가늘며 하부에 나무로 사각(四角) 또는 타원형의 통나무를 잘게 다듬어 맞추었는데 ‘즈록’의 길이는 80cm, ‘곰배’의 직경은 10cm, 길이는 18cm 정도 이다. 흙덩이를 두드리며 불렀던 ‘곰배질 소리’, ‘흙병에 두드리는 소리’가 전해오고 있다.

(6) 낭갈래죽 — ‘갈래죽, 가래’라고도 한다. 밭갈이를 한 후 고랑의 흙을 울리거나 다지는 데 쓰이는 나무 삽이다. 손잡이 부분은 가늘고 길며 밑 부분은 사각(四角)이 되게 ‘口’字형을 하였다. 우리 나라의 ‘갈래죽’(쇠납날, 가렛날)은 기원전 후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¹⁴⁾, 제주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기부터 ‘갈래죽’의 사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데, 특히, 화전(火田)으로 밭을 일굴 때 ‘따비’와 함께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로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전승되고 있을 뿐 오늘날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7) 뿔망탕이 — ‘뿔망태, 뿔망탕이, 셋망탕이 · 씨맹탕이 · 망탕이 · 디뿔망탕이 · 끈망탕이’¹⁵⁾라고도 했다. 주로 남자들이 사용하던 것이나 구좌 · 김녕 지역에서는 여자들도 가리지 않았다. 파종을 할 때 씨나 비료를 담아 어깨에 메고 사용하였으며, 퇴비 및 돛거름 등을 뿌릴 때도 사용했다. ‘거름착’보다 작고 전체적으로 원통형(圓筒形)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노끈으로 입구 좌우를 묶어서 어깨에 뿔 수 있도록 하였다. 농사를 짓는 집 중 남자들이 있는 집에서 갖추고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료는 산디짚, 나록짚, 신서란 등을 구해서 사

14) 본토의 것은 넓적한 부분 끝에 말굽 모양의 쇠가 박혀져 있다. 이 ‘쇠납날’은 황해남도 은율군 운성리 유적에서 기원전 1~2세기로 보이는 것이 출토된 바 있다. 또한 몽촌 토성 발굴에서 길이 12cm, 날 부분 폭 6.5cm 가량의 ‘가렛날’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15) 제주대학교국어교육과, 『제주도부락지』 I (제주대학교담라문화연구소, 1992), p.336.

용했다. 아무나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보통 가정에서는 사서 썼으나, 없으면 빌려도 썼다. 대개 파종 때만 쓰는 것이어서 4~5년은 썼다. 사용치 않을 때는 기둥의 '공쟁이'이나 고팡 등에 매어 두었다가 썼다.

(8) 섬피 — '섬비, 꼬실캐, 꼬서귀, 꼬실피'라고도 한다. 파종한 후 길이 약 150cm정도의 소나무나, '팡낭(팡팡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전체적으로 삼각형(三角形)이 되게 '버림대'를 대고 줄로 엮어 묶는다. 그리고 큰 가지 앞에 '상그리진다'하여 양어깨에 걸 수 있는 끈을 묶으면 '섬피'가 완성된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골골루 흙으로 덮어 주는 것이 있으므로 돌을 이용하여 무게를 조절하고 썼다. 보통 한 사람 끌었는데 '이랑'을 따라 끌거나 '이랑'을 가로질러 끌었다. 대개 하나를 만들면 그 밭에서 사용하고 해체해 버리는데, 갓고 다니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火木)으로 쓸 나무도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9) 남테와 돌테 — 남테는 여름 농사(주로 조농사)때 좁씨를 뿌린 후 씨앗이 흙에 잘 묻히고 흙이 단단하도록 다져 주는 데 썼다. '채경', '채경고리', '몸통', '발굽'으로 이루어졌다. 통나무에 말발굽처럼 나무 말뚝을 구경 6cm, 길이 10cm로 만들어, 길이로 8~9개씩 엮갈리도록 6~7줄을 박아 만든 것이다. 몸통 지름은 28cm, 길이 95cm였으며 무게는 33kg였다. 남테 몸통 양편으로는 무쇠로 '중쇠'를 박아 고정시켰고, 여기에 '채경'과 '채경고리'를 고정시켜 앞에서 소나 말, 사람이 자유롭게 끌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로 돌로 만든 것을 '돌테'라 하였다. 실제 작업은 조밭 밭기를 업(職業)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테우리'들에게 시간과 금액을 정하여 맡겨서 하는 게 보통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말테'라 하여 2~3명의 '테우리'가 1~20여 필의 말을 한꺼번에 밭에 밀어 넣어 2~3시간 밟아 주는 것이 없는 데 말이 귀하면 남테를 만들어 와 함께 밟아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밟아 주면 밟지 않을 때보다 수확이 훨씬 좋았다고 한다. 밭을 밟

오면서 불렀던 '발발는 소리', '답전요(踏田謠)'¹⁶⁾가 조사되어 전해오고 있다.

(10) 오줌항 — '돛통'가는 길목이나 '우영' 옆에 두었다가 오줌을 모으는 데 썼다. '60년대만 하더라도 집안의 필수품이었다. 비료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오줌은 아주 귀한 거름이었다. 그래서 다른 집에 놀러 갔다 가도 오줌은 반드시 집에 와서 누었다고 한다. '오줌항'은 곡식을 보관하는 데 쓰는 항 중에서 금이 가거나 타져서 더 이상 항으로 쓸 수 없어지면 철사나 시멘트 등으로 보수하여 '오줌항'으로 썼다. '70년대 이후 비료의 보급으로 급격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모아진 오줌은 2~3월에 주곡(主穀)인 보리에 주로 주었는 데 이 때 오줌을 '오줌 허벅'¹⁷⁾에 담아 옮겼는 데 담을 때는 '오줌박세기'¹⁸⁾를 썼다.

(11) 굴체 — 거름이나 자갈 등을 간단히 옮기거나 '우영'에서 임시로 먹을 채소를 할 때도 썼다. 보리수확을 할 때 떨어진 보리 이삭을 줍는 데도 썼다.¹⁹⁾ 가늘고 질긴 나무를 U字形으로 휘어서 전체적인 형태를 잡고 취, 정동, 대나무로 오목하게 엮어 바닥을 만든 것이다. 바닥인 '굽'의 재료에 따라 '취 굴체', '정동굴체', '대굴체'로 구분하여

16) 좌혜경 편, 『제주섬의 노래』(국학자료원,1995), pp.156~159.

17) 거름으로 사용할 '오줌'을 담아 옮기는 데 썼다. 물허벅으로 쓰다가 부리나 목 주변이 깨어지거나 항 부분에 금이 가게 되면 보수하여 이 '오줌 허벅'으로 사용하였다. 이것도 '물허벅'과 마찬가지로 '물구덕'에 넣어 '물배'로 등허리에 지고 다녔다. 오늘날은 거의 사용치 않으나 예전에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의 하나였다.

18) '오줌항'에 모은 오줌을 밭으로 가져가기 위해 '오줌 허벅'에 옮겨 담을 때나 옮겨온 오줌을 '묘(苗)에 줄 때도 사용한다. '물박'으로 사용하던 '족박'에 곰팡이가 피거나 타져서 더 이상 '물박'으로 쓸 수 없거나, 간장종지로 사용하던 '뒹약세기' 등이 타지면 '오줌박세기'로 쓴다. 해안 지역에서는 '거평'이라 하여 전복의 껍데기를 쓰기도 했는데, 이것은 '췌뚱'이나 '말뚱' 따위를 굵어모을 때 썼다.

19) 강영봉, 『제주의 언어』1(제주문화,1997), pp.160~165

사용하였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늘날도 오일장(五日市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수명은 1~2년 정도였으며, 쉽게 내려 쓸 수 있도록 헛간이나 '굴묵²⁰⁾' 입구의 '공쟁이'에 걸어 두고 썼다.

(12) 쇠스랑 — '쇠시렁, 쉼스랑'이라고도 한다. 흙덩이를 부술 때나 거름을 걷어 낼 때 또는 흙갈이를 할 때에 찍어서 일구는 데 사용한다. '즈룩'과 '쇠스랑'으로 이루어지는 데 쇠스랑은 발의 수에 따라 '두발, 세발, 네발 쇠스랑'으로 구분된다. 오늘날 주로 쓰고 있는 것은 '세발 쇠스랑'이다. 손잡이인 '즈룩'은 단단한 나무면 아무거나 썼으며, 수명은 약 5년 정도이다.

(13) 거름착 — '거름 망탱이'라고도 한다. 별도로 만들어 쓰기보다는 곡식을 보관하거나 옮기기 위해 썼던 '떡'이 헐면 이것을 이용하였다. 주로 '쇠왕'의 거름이나 돛거름을 밖으로 내거나, 담아 옮기는데 사용하였다. 산디짚, 신서란, 나록짚이나 미(억새의 속잎)를 엮어서 만든 원통형(圓筒形)의 것이 주로 쓰였다.

(14) 씨부게 — '부게, 셋망데, 부게기'라고도 한다. 참깨·모물(메밀)·배추·무·팔 따위의 귀한 씨나 소량의 씨앗을 보관하는 데 썼으며, 쥐의 피해와 습기를 막기 위해 높은 곳에 달아 보관했다. 짚이나 미(억새 속잎) 또는 신서란을 이용하여 만드는데 윗 부분은 좁고 밑 부분은 평퍼짐하여 복주머니와 닮았으며, 끈을 달아 쓰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목 부분을 조여 댄 수 있는 것을 특히 '부게기'라 하여 구분하기도 했다. 뿔마루나 '굴묵' 위, 천장 같은 데 매달아 보관하는데 이는 '굴묵'에 불을 댄 때 그 연기가 '부게기'에 쏘여 씨앗에 벌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 난방(暖房)을 위해 '구들'에 불을 지피던 가옥 공간을 말한다. 이 곳 주위에 '쉼뚱'이나 '말뚱'을 말려 준비한 땀감이나, 장작 등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2) 육성·수확구

밭갈이를 하고 나서 씨를 뿌리고, 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발아(發芽)를 위해 흙을 덮어 밟아 준 뒤, 거름을 주면 파종이 마무리된다. 이제는 최대의 수확을 위해 생산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뿌린 씨가 한쪽에 치우친 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또 제주의 경우 해양성 기후로 온난 다습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한 잡초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를 위한 농기구가 육성구로 '굴갱이' 단 한 종류가 전한다. 최근에는 잡초의 제거를 위해 제초제를 투약하는 약통과 별레나 새 등을 쫓는 도구와 균을 죽이는 도구가 기계화(機械化)되어 함께 쓰이고 있다.

(1) 굴갱이 — '굴갱이, 굴강쇄, 굴갱, 췌굴갱이, 골개, 골가지'라고도 하는데, 육지에서 '호미'와 같이 밭에 나는 잡초를 매는 데 썼다. 낱인 '굴갱이'와 '즈룩'으로 이루어지는 데, '굴갱이'는 다시 '낱', '섭', '목'으로 구분되었다. 밭의 자갈 정도에 따라 검질을 매는²¹⁾ 데 썼던 '굴갱이'를 달리 썼는데, 그것은 낱의 형태에 따라 다시 다섯 종류로 나뉜다. 둥근 쇠를 이용해 낱을 가장 좁게 만든 것, 넓은 쇠를 가공하여 낱을 좁게 하되 안쪽 '낱'은 날카롭게 다듬은 것, 넓은 쇠를 가공하여 만들었되 '낱'을 약간 넓게 하여 '섭'을 준 것, '낱'을 넓게 하여 '섭'을 낸 육지 것과 같은 것, '일본호미'와 같이 '낱'이 역삼각형으로 된 것으로 나뉜다. 또 '일본호미'의 '낱'과 같은 것에 긴 '즈룩'을 붙인 '선호미'가 일제시대 때부터 보급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2) 호미 — 곡식이나 풀을 베고, 나무를 치는 데 썼다. 다른 지방에서 '낫'이라고 하는 것을 제주에서는 '호미'라고 한다. '즈룩, 호미'

21) 검질(밭에 난 잡초 또는 짚과 같은 것으로, '지심', '지슴'이라고도 한다)을 맬 때는 '검질 매는 소리'를 하였다. 지역적으로 전승되는 소리가 다양하여 전승되는 종류도 다양한 편이다. '사데(사디)소리, 진사데, 아웨기, 흥애기, 상사디아요, 담불(담벌)소리, 더럽소리' 등이 전승되고 있다. 조영배, 앞의 책, pp.137~156.

로 구성되며, '호미'는 다시 '날'과 '섬', '목'으로 구분된다. '즈룩'의 길이는 보통 30~35cm정도이고, '날'의 길이는 20~23cm정도이다. '호미'는 쓰임새에 따라 '호미', '톱날호미', '매호'미로 구분된다. '호미'와 '톱날호미'는 '날'에 '목'이 거의 없이 곧바로 '즈룩'에 박혔지만, '매호미'²²⁾는 '목'이 길게 된 것이 특징이다. '날'의 폭은 내륙의 것보다 약간 좁으며, '날'은 '즈룩'과 수평이 되어 있는 것과 약간 밀으로 내려가 있는 것이 있다. 이는 작업을 할 때, 사람의 높이와의 각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즈룩'의 재료는 주로 소나무를 썼으나 가벼운 나무면 가리지 않았고, '날'은 강한 '쇠'를 두드려서 만들고 담금질로 더욱 강하게 하였다.

3) 운반구

여느 것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전래의 도구는 동력(動力)의 근원을 인력(人力)에 두어, 지고·이고·들고 날랐다. 그러나 다량의 수확물이나 농기구 등을 운반하는 데, 또는 먼길을 이동할 때는 축력(畜力)이 많이 이용되기도 했다.

(1) 지게 — 큰 농기구나 다량의 작물 등 들고 다니기에 어려운 것들을 운반하는 데 썼으며, 마차나 다른 운반구가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옮기는 데 썼다. '지게발', '가지', '새역', '등테', '친'으로 구성되었으며 '작쉬'로 받치고 썼다. '스'자형의 나뭇가지 2개를 이용하여 위를 좁게 하고 아래를 벌여지도록 짠 것이다. 짐은 가지에 올려놓고 등허리에 지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들 작업에 쓰이는 '들 지게'는 별도로 튼튼한 나무로 굵게 만들어 썼으며, '선 지게'라 하여 보리 수확 후 말린 보리를 옮길 때에 쓰기도 했다. 특히 제주의 지게는 '지게발'이 짧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밭담 등 넘어 다녀야 할 곳이

22) 모양은 '호미'와 흡사하나 사용된 '쇠'가 두껍다. '즈룩'이 10~13cm정도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잘하고 물기 있는 듯거름 등을 옮길 때는 '바지계'를 받치고 썼으나 지금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2) 배 — 물건을 묶을 때나 '섬피' 등을 끝 때 쓰는 밧줄을 제주에 서는 '배'라고 한다. '배'를 만드는 재료에는 말총²³⁾, 신서란, 산뽕짚, 나뽕짚, 남총, 모시 왕골, 형짚 등이 쓰였다. 쓰이는 용도에 따라 '물 배, 가마니 배, 짐배, 쇠앗배, 마차배' 등 다양하게 쓰였다. 형태에 따라서는 원형(圓形)의 것과 넓은 형의 것이 있다.

(3) 마차 — 소나 말의 힘을 이용하여 많은 양의 물건을 운반하는 데 썼다. 짐을 싣고 나갈 때 묶는 끈은 말총이나 신서란 등으로 만든 든든한 '짐배'를 사용하였다. '채경', '상장틀', '바퀴'로 크게 구성되는데, 많은 힘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재료도 단단하고 질긴 자귀낭, 자배낭, 가시낭, 곰배낭 등을 썼다. '70년대에 바퀴가 타어어로 바뀌면서 운반을 업(職業)으로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많이 쓰이다가 경운기가 보급되고 농업용 차량을 쉽게 구할 수 있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사라졌다. 최근까지도 성산 등 일부 지역에서 쓰였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4) 질매 — '길마'라고도 한다. 소나 말의 힘을 얻어내는 데 쓰였으며, '소질매·말질매'가 별도로 있어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두 개씩의 나무쪽을 거털못으로 연결해 \wedge 자 형으로 만들어 앞뒤에 얹어놓고 네 개의 마룻대로 연결한 것이 기본 구조다. 마룻대 끝은 모두 밖으로 한 뼘 정도씩 나와 있어 밧줄을 거는 데 이용되었다. 밑은 짚으로 두툼하게 '도금(도곰'이라고도 한다)'을 만들어 붙여, 소의 잔등이 '질매'에 상(傷)하는 것을 방지하였다.²⁴⁾ 주로 소나무로 만들어 썼으

23) 말총을 재료로 끈 배를 '총배'라고 하는데, 짐을 싣어 나르는 데는 물론이고, 방목(放牧) 중인 마소를 잡아 땄 때나, 돼지를 도살할 때 돼지를 묶는 일 등 주로 큰 힘이 쓸리는 곳에 많이 사용하였다.

24) 이훈중, 『민족생활어사전』(한길사, 1922), p.339.

며, 경운기와 농업용 차량 등이 사용되면서 '질매'도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5) 산태 — '산태'라고도 하는데, 들, 흙, 곡물 따위를 올려놓고 들어 운반하는 데 썼던 것으로, 세워서 사다리와 같은 용도로도 쓸 수 있었던 '산태'와 등근 태두리를 만들고 끈으로 얼맹이처럼 엮어 만든 것으로 '돌산태'가 쓰였다. '산태'는 긴 나무 2개를 H字형으로 놓고 가운데에 3~4개의 가로대를 댄 것으로 2인 혹은 4인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들어 운반하는 데 썼다. 이와는 달리 1인용인 '돌산태'는 많지 않은 양의 들을 나르기 위한 도구였다. 오늘날도 사용하고 있다.

4) 탈곡구

밭에서 수확하고 운반을 통해 집안으로 옮겨오면 알곡을 털어 내야 한다. 이 때 사용했던 도구로 전통적인 것들은 인력에 의존했던 것들이었지만, 오늘날의 것들은 전력을 이용한 것들이 주로 쓰이고 있어 크게 변화하고 있다.

(1) 클 — '홀태' 또는 '가래기클'이라고도 했는데, 앞밭과 뒷밭을 훑아 세워서 사용했는데, '보리클'과 '산디클'을 구분하여 썼다. 통나무를 대충 다듬고 지름 10mm 정도의 원형(圓形)철을 촘촘히 박아놓은 것은 '보리클'로 '30년경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며, 두줄, 세줄, 네줄 보리를 털어내는데 썼다. '산디클'은 쇠판을 오려서 날을 세우고 그 판을 오목하게 하여 그 틈새를 좁게 하여 '귀클'에 붙여 사용하였다. 날날이 달린 알곡이라도 빠지지 않게 된 것이 특징이다. 보리를 홀으며 불렀던 소리²⁵⁾가 전해오고 있다.

(2) 도깨 — '도깨, 도리깨'라고도 하는데, 보리, 조, 콩, 유채 따위의 곡물을 탈곡하는 데 썼다. 긴 나무를 이용하여 손잡이를 만들고 가장 자리에 구멍을 뚫고 가늘고 길긴 나무를 끼워 돌아가게 하였다.

25) 조영배, 앞의책, pp.189~192

두 손으로 잡고 서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깨 뒤로 넘겼다가 앞으로 돌리면서 때렸다. 이 작업을 하면서 불렀던 '마당질소리'²⁶⁾, '타작요'²⁷⁾가 전해오고 있다. 부분적으로 '어시', '아들', '뿔레'로 이루어졌으며, '어시'는 가시나무, '뿔레'와 '아들'은 윤유리 나무를 재료로 만들어 썼다. 도깨어시의 길이가 140cm, 도깨아들의 길이는 130cm 정도였다.

(3) 작데기 — '도깨'로 마당질 할 때 흩어진 섬이나 보릿대, 깨낭 등을 케우릴²⁸⁾ 때 썼다. 전체적으로 Y자로 '즈룩'에 '가지'가 붙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재료는 가지가 붙은 소나무면 가리지 않았으나 특별한 속신(俗信)이 전해 오고 있는데, '언어먹지도 못하고 매만 닦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재수가 없다고 하여 배지 않고 눈여겨보아 두었다가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오후 무렵에 장만해 와서 '작데기'를 만들었다고 한다.²⁹⁾

(4) 글쟁이 — '글게, 갈퀴'라고도 한다. '도깨' 작업 때에 생기는 지푸라기 같은 것을 가려내는 데 썼다. 또 땀감으로 사용할 솔방울, 솔잎 및 낙엽 같은 것을 긁어모을 때도 썼다. 끝이 갈 고리진 여러 개의 '발'을 부챗살처럼 펼쳐서 긴 '즈룩'에 연결했다. 주로 대나무를 쪼개 끝을 구부린 것을 썼는데 이를 '대글쟁이'라고 했으며, 요사이엔 철사로 만든 것을 오일장(五日市場)에서 사서 쓰는 데 이를 '쇠글쟁이'라고 한다. '글쟁이'는 '즈룩', '버림대', '발'로 이루어졌다.

(5) 솔박 — '속박, 쯤팍, 손박'이라고도 하는데, 둥그스럼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나무 바가지 같은 비스한 그릇으로 탈곡한 알

26) 조영배, 앞의책, pp.160~171

27) 좌혜경 편, 앞의책, pp.161~164

28) 몽치거나 모여 있는 물체를 해집어 이리저리 흩어지게 하는 것을 '케우리다'라고 말한다.

29) 제주시 외도동 김창영(男, 65)의 제보에 의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곳에서의 제보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곡을 바람에 불려 정선(精選)할 때 사용하였다. 바람이 부는 날 명석 등을 마당이나 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울래 바닥에 깔고서, 채로 다 걸러 내지 못한 미세한 먼지나 이물질(異物質) 등을 불려 낸다.³⁰⁾ 형태적으로는 손잡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³¹⁾, 크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쓰였다. 요사는 플라스틱 제품이 오일장(五日市場)을 통해 보급되고 있다. 도내 일반 가정이면 어느 가정에서나 갖추고 살았던 생활 필수품이었다.

(6) 열맹이 — ‘어래미’라고도 한다.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보리·조·콩·모밀(메밀)·깨 등을 탈곡한 후 병데기를 쳐내는 등 정선할 때 썼다. 주로 탈곡의 초반부에 고고리 등과 큰 이물질(異物質)이나 큰 쪽정이들을 걸러 낼 때 주로 사용했다. 대나무를 얇게 깎아 ‘켓블’ 형태의 사각(四角) ‘창’을 만들고 계속해서 대나무를 엮어 ‘천’과 손잡이인 ‘바위’를 붙였다. 최근에는 눈이 큰 철사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적당한 크기의 성근 구멍이 난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7) 마계 — ‘덩드렁마계, 던드렁마계’라고도 한다. 이삭을 두드려서 알곡을 털어 내는 데 썼으며, 명석 등을 엮을 때 산디짚 등을 두드려 부드럽게 만들 때도 사용했다. 지름 11cm, 몸통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5cm 정도인데 원통형(圓筒形)으로 되어 있다. 크기별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작은 것은 22cm, 큰 것은 34cm 정도이다. 재료는 주로 가시나무, 멸구술 나무 등을 사용하고 있다.

(8) 명석 — ‘덕석’이라고도 하는데, 탈곡한 곡물 등을 건조시킬 때

30) 곡식의 양을 정하거나 일정량씩 나눌 때도 쓰였으며, ‘잘리(자루)’ 등에 담을 때도 사용하였다. 물을 뜨는 ‘물박’으로도 쓰였으며, 밭에 나가서 식사할 때 그릇 대용으로 쓰기도 하였다.

31) 손잡이인 ‘주록’이 별도로 달린 것도 있지만, 없는 것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술박’의 가장자리 부분인 ‘바위’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바닥인 ‘굽’이 붙었다.

나 수확한 작물을 탈곡할 때 등 땅 바닥에 깔개용으로 썼다. 산디짚으로 엮어 만들었으며 직사각형과 원형(圓形)의 것이 함께 쓰였다. '날레 년다'고 하여, 명석을 마당에 깔아서 곡식을 퍼 넣어 말리는 데 하루 2~3회 '당그네'로 저어 골고루 말린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용이하게 엮어 낼 수 없었으며, 크기는 길이 315cm, 폭 173cm정도로 1개가 반 평(坪)정도다. 오늘날은 '큰일'이 있을 때 마당에 깔개로 사용하거나, 모인 사람들이 옷놀이 판을 벌릴 때 등에 사용하고 있다.

(9) 푸는체 —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탈곡 작업 때 '줄래32)'를 구분하거나 '줄래'와 함께 있는 알곡을 정선할 때, 또 'ㄱ래'로 가라 낸 겹데기와 쌀을 구분할 때 '체질33)'하는 데 사용하였다. '굽'은 넓고 편평하며 '뒤'는 좁고 오목하게 하여 손잡이인 '에움'에 붙어 있고, 앞쪽으로 '바위'가 덧대어 있게 만들어졌다. 바람이 없는 날에 주로 사용한다. '체굽'의 재료에 따라 구분되는데 대나무로 된 것과 정동 덩굴, 줄갱이 줄로 된 것으로 구분된다. 남원, 서귀 등 도내 남쪽 지역에서는 대나무를 엮어 짚것을 사용하였으나, 북쪽 지역에서는 줄갱이 줄로 짚것을 주로 썼다.

(10) 당그네 — '근데, 군데'라고도 하는데, 보리 등의 탈곡한 알곡을 건조시킬 때 썼다. '당그네'는 햇빛이 쬐이는 날, '명석' 위에 곡식을 넣고 1일 2~3회 저어 주는데, 이 때 밀의 곡식이 위로 올라와 건조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 '즈룩'과 '널판'으로 이루어 졌는데, '널판'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울룩불룩하게 이빨처럼 생긴 요철형 '널판'의 것이고, 또 하나는 이빨이 없는 '널판'의

32) 죽갱이 · 띠끝 · 검부라기 등을 일컫는 제주 지역어(地域語)다.

33) 탈곡한 곡물을 담아 가벼운 것은 날아가거나 앞에 남게 하고, 무거운 것은 뒤로 모이도록 구분하는 작업을 '체질'이라고 한다. 또 바람이 조금 있는 날이면 '체'를 높이 들고 천천히 쏟아 내려서 정선하기도 했다.

형이다. 이빨이 없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빨이 있는 것 보다 '널판'이 작은 것으로 '굴묵'에서 재를 파내거나, 땀감을 밀어 넣는 데 주로 쓰였다.

5) 도정구

탈곡한 곡물을 도정하기 위하여 썼던 도구로 '뭍방애', '질구', '방애', 'ㄱ래'가 사용되었으며 '뭍방애'를 사용하기 위해 곡물에 물을 축여주는 데 사용했던 '물통'도 있었다.

(1) 뭍방애 — '뭍ㄱ랑, 뭍ㄱ래, 뭍구래, 뭍방아, 뭍방애, 뭍방이'라고도 한다. 탈곡한 보리나 조 등을 도정(搗精)할 때 썼다. 마을마다 4~5개씩으로 30호(戶)에 1개 정도가 있었으며, 이용하는 가호의 중앙에 위치하는 사거리 등에 있었다. '뭍방애'는 발침 돌인 '알돌' 위에서 '중수리'라는 기둥을 중심으로 '웃돌'이 회전하면서 탈곡한 곡식을 정미(精米)하게 된다. '중수리'에서 '웃돌'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장틀', '새역'이 쓰였으며, '채경'을 통해 전달된 동력(動力)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웃돌' 중앙에 장통을 만들고 '상장틀'에 '조쟁이'를 장치하여 사용하였다. 사람이 주로 돌렸으나 소나 말의 힘을 이용하여 돌리기도 했다. 1시간에 20말(斗)정도 작업할 수 있었다.³⁴⁾ '뭍방애'를 설치할 당시에 구성된 '뭍방애 집'의 구성원들이 차례를 정해³⁵⁾ 사용하였으며, '뭍방애 집'의 지붕일기나 보수는 공동으로 하였다. 방애를 돌리기 위해 소를 몰면서 부른 '연자방아질 소리'가 전해오고 있다. 원동기와 전기의 보급으로 정미소(精米所)가 세워지면서 오늘 날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2) 물통 — '수용통'이라고도 한다. 알곡을 '뭍방애'에서 찜을 때

34) 泉淸一, 앞의 책, pp.160~168

35) '방애질'을 일찍 하기 위해선 다른 '뭍방애 집원'보다 먼저 보리를 담은 '술박'을 '뭍방애 항'에 갖다 둬으로써 우선 순위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무거운 ‘웃돌’에 짓눌려도 알곡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이 때 알곡을 물을 축여 사용하였다. 가까운 곳에 자연적인 ‘물통’이 있으면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으나, 먼 곳에서 가져와 사용할 때 물을 보관하거나 직접 보리를 넣고 불리는 데 사용했다.³⁶⁾ 물통인 ‘바위(‘천’, ‘천’이라고도 한다)가 바닥인 ‘굽’ 위에 세워져 있고, ‘굽’의 제일 낮은 곳에 구멍이 나 있어 물을 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코’라 한다. 함덕 지역의 경우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물을 축이는데 썼고 나머지에는 물을 보관해 두는데 썼다고 한다. 보리 2~3말을 불리는 데 물 반 허벅이면 족하다고 한다.³⁷⁾ ‘물방에’가 사라지면서 함께 사라졌다.

(3) 들절구 — ‘절구통, 들방에, 도구 방에’라고도 한다. 작은 량의 도정(搗精)이나 제분(製粉)할 때 사용하였다. 원통형(圓筒形)의 현무암을³⁸⁾ 오목하게 파내어 곡물을 넣고 찼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장 자리에 ‘바위(‘천’이라고도 한다)를 만들고, 잘록한 허리가 있는 ‘몸통’, 바닥인 ‘굽’으로 이루어졌다. ‘큰일’에 쓸 떡가루를 만들 때 구멍으로 들어가는 가루는 ‘비’로 쓸어 내면서 사용했다.

(4) 남방에 — ‘남방아’라고도 한다. 곡물(穀物)을 도정(搗精)하는 기구의 하나로, 통나무의 중앙에 홈을 파고 거기에 들로 만든 ‘들혹’을 박아 만든 것이다.³⁹⁾ 곡물이 밖으로 튀어 나가지 못하도록 가장

36) 바쁘지 않고 많지 않은 양일 경우에는 ‘알돌’에 보리를 직접 부어 넣고 물을 적당량 축인 다음 작업하였던 곳도 있었다. 서귀포 지역에서는 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주로 이용하였다.

37) 유수암리의 경우 연못가에 ‘물방에’ 2개를 설치하여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물허벅으로 물을 길어 오기 힘든 지역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38) 나무로 된 ‘절구’도 사용되었다. 통나무 가운데를 원추형의 ‘홈’이 되도록 파고 다듬어서 ‘절구 공이’로 찼도록 된 것이다. ‘남절구’의 재료로는 느티나무를 주로 사용하였다.

39) 대정, 한경 지역에서는 현무암(玄武巖)을 가공하여 만든 ‘들방에’가 사

자리에 ‘바위(‘천’이라고도 한다)’가 세워졌다. 규격은 직경 80cm에서 150cm, 높이 50cm에서 70cm 정도로 부녀자(婦女子)들이 서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재료는 느티나무, 벗나무, 가시나무를 이용하되 통나무를 양편으로 쪼개어 만들었다. 속설(俗說)에는 “방아 밑에 흙을 주어 먹으면 득남(得男) 한다”고 하기도 한다. 작업 때 불렀던 ‘방아질 소리’가 전해오고 있다.

(5) 정궤 — ‘궤, 궤, 정궤, 쟁궤, 맷돌’이라고도 한다.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보리쌀이나 모밀(메밀) 쌀을 검필 때⁴⁰⁾나 알곡을 가루로 만들 때 사용했다. 또 ‘풀궤, 풀맷돌’이라고 하여, 콩 등을 물에 불려 연하게 하여 밀반죽 상태로 만들 때 사용하던 것도 있었다.⁴¹⁾ 두 개의 원반형 돌로 구성되었는데 ‘알돌’과 ‘웃돌’이다. ‘웃돌’이 이탈되지 않고 회전할 수 있도록 ‘알돌’에 ‘조쟁이’를 박고 ‘웃돌’에는 ‘ষ’을 내었다. 회전하면서 갈려지는 정도를 조정하기 위해 이곳에 형겅 등을 넣어 간격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웃돌’에는 ‘맷손’⁴²⁾이라 하여 손잡이가 달렸으며, ‘궤코’라 하여 ‘궤질’ 할 곡식을 넣는 구멍이 나 있다. 작업 때 불렀던 ‘맷돌질 소리’가 전해오고 있다.

(6) 도고리 — 떡을 만들기 위해 떡가루를 반죽할 때 썼던 큰 나무 그릇이다. 돌로 만든 ‘돌도고리’와 느티나무(굴묵귀), 벗나무, 가시

용되기도 했다.

- 40) 보리, 녹두, 모밀(메밀) 따위를 애벌같이 하는 것을 ‘검피다’라고 한다.
41) 보조 기능으로는 ‘보리궤’ 작업을 할 때 클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데 달아 매기도 하였고, ‘집줄’을 놓을 때 ‘호랭이’로 만든 외가닥 줄을 합쳐 하나의 ‘집줄’로 만들 때에는 ‘뒤치기’를 고정시키는 데에도 쓰였다.
42) ‘궤궤궤’, ‘궤궤궤’, ‘궤궤궤’라고도 했다. 특히 ‘큰일’ 때 많은 량의 떡을 해야 할 경우 ‘궤’ 작업이 오래되어야 했다. 이 때 ‘궤궤궤’이라 하여 ‘맷손’의 두 감절쯤 되는 나무 막대기를 가로질러 보조 ‘궤궤’으로 쓰기도 했다.

나무 등으로 만든 '낭도고리'가 있다. 통나무 밑둥을 옆으로 켜고 중앙에서 용도에 알맞게 나무를 파낸다. 바닥인 '굽'과 주위를 돌아가도록 만든 '바위(천'이라고도 한다)'로 구성되었다. 크기는 내직경(內直徑)이 20cm에서 150cm까지로 다양하며, 형태는 불완전 원형(不完全圓形)을 이루는데, '바위'의 외면 상부에는 '축'을 두어 손잡이 구실을 하기도 한다. 7렛도고리, 떡도고리, 밥도고리 등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썼다.

(7) 체 — 곡식을 타작한 후 낱알과 쭉정이를 분리하거나 또는 알맹이와 씨라기를 가려내는 데 썼다. 둥그런 바퀴인 '챗망' 안에 곡식을 담고 흔들어서, 낱알과 씨라기를 남기고, 가루를 떨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체'는 '챗불'의 재료에 따라 '대체'와 '총체'로 나뉘는데, 대로 엮어진 것을 '대체', 말총⁴³⁾으로 엮어진 것은 '총체'라 하였다. 오늘날의 것은 철사를 '챗불'로 엮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챗바퀴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주방 용구로 쓰기도 한다. '챗불'의 구멍 크기에 따라 '성근체, 중체, 좀진체'로 나누기도 했다.

6) 저장구

탈곡한 곡물을 저장하는 데 썼던 도구로 '두ړ', '뒤주', '항', '맥' 등이 사용하였다.

(1) 두ړ — 정미(精米)한 알곡이나 탈곡(脫穀)과 건조가 끝난 알곡을 보관할 때 사용했다. 굵은 통나무 속이 저절로 썩어 버린 것을 잘 다듬어 낸 후 바닥이 되도록 나무 조각을 깔아 고정시켜 밑판을 데어 사용하였다. 제주산 자배나무가 속으로만 썩어 들어가는 성질이 강한 나무이기에 잘려진 통나무의 부식된 속 부분을 파내고 사용하였다. 간혹이긴 하지만 팽나무나 오래된 가시나무의 속을 파내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가정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형태와

43) 고운 가루를 내는 데 쓰는 '체'는 고운 형겼을 '챗불'로 쓰기도 했다.

크기는 일정치 않다. '창떡'과 같이 주로 상방 구석이나 고팡에 놓아 두고 사용하였다.

(2) 뒤주 — 주로 여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정미한 알곡을 보관하는 데 썼다. 형태는 사각형(四角形)의 것으로 네 기둥을 세우고 벽과 바닥을 널판으로 데어 공간을 만들고 위에 천판을 붙였다. 천판은 두 짝으로 만들어 뒤편의 것은 불박이로 하고 앞쪽의 것으로 여닫는다. 여닫는 데는 장식을 달아 자물쇠를 채우기도 했다.⁴⁴⁾ 재료는 무겁고 질긴 자귀낭, 자배낭, 가시낭 등을 구해서 사용했으므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었다.

(3) 항 — 고팡에 두고 알곡이나 정미(精米)한 쌀 등을 보관하는 데 썼다. 높이가 낮고 입구가 넓으며 아래가 좁고 배가 부른 형태로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었다. 보통의 항은 5~6말 정도를 담을 수 있는 크기였으나, 단지는 1되 이하, 망데기는 1말 가웃, 술항은 25말 정도의 크기였다. 쌀이나 잡곡 등 곡물은 물론, 장류(醬類)를 담는 데도 쓰였다. 오일장(五日市場)에 가서 사거나, 마차에 싣고 오는 항장수에게서 사서 사용하였다. 제주에서 항을 만들 수 있는 태토(台土)가 나오는 곳은 신평, 구업, 한경으로 거의 제한되는데, 그곳에 '노랑굴'과 '검은굴'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 곳에서 거의 모든 항이 제작되었는데, 고팡항, 허벅, 장태 등이 제작되었다.⁴⁵⁾

(4) 떡서리 — '망탱이, 맥고리, 창떡, 떡, 떡등구미, 망데기'라고도 한다. 탈곡(脫穀)해 들인 곡식 등을 명석에 넣어 말릴 때나 상방에 보관할 때 곡식을 담아 옮기거나 보관하는 데 썼다. 전체적으로 원통

44) 신영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p.432.

45) 『公泉浦誌』, p.120에 의하면 “양두표”라는 분이 ‘영등물머럭’에서 옹기 판매장을 운영하였는데, ‘호매선’이라는 풍선을 이용하여 대정 쪽에서 옹기를 싣고 와서 모래판에 배를 대고 옹기들을 내리면, 인근 마을에서 조, 보리, 콩 등을 갖고 와서 교환해 가기도 하였고, 부녀자들이 등에 지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였다고 한다.

형(圓筒形)이 되도록 산되짚 등으로 만들어 썼다. 간혹 바다인 '굽'이 사각(四角)으로 된 것도 있다. '굽' 위로 입구인 '바위'가 붙어 있는데 '굽'의 크기와 높이에 따라 전체적인 크기가 구분되었다. 가장 큰 것을 '창떡'이라 했는데, 1섬들이에서 2섬들이까지의 여러 종류가 쓰였다. '창떡' 등 큰 것은 주로 곡식을 저장할 때 썼으며, '날렛뎡뎡이' 등 작은 것들은 운반 할 때 주로 썼다. 습기에 약한 짚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에 오늘날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7) 기타

직접적으로 농경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경과 관련된 것으로 노동복으로서 '갈옷'과 뜨거운 햇볕을 막는 데 썼던 '정당벌립', '대패랭이', '삿갓' 등의 모자(帽子)와, 비옷인 '우장', 도량구(度量具)로서의 '말되흙', 도시락 주머니인 '약들기', 우마(牛馬)의 사육을 위해 많은 양의 출을 벨 때 사용하였던 '장낫'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갈옷 — '감옷'이라고도 하는데 제주인의 대표적인 노동복⁴⁶⁾이다. 평상복이나 예복 등으로 입던 옷이 날거나 헤어져 더 이상 평상복으로나 예복으로 입을 수 없게 되면, 풋감의 즙으로 물을 들여⁴⁷⁾ 작업이나 농사일을 할 때 입었다. 처음 감물을 들이게 되면 풀을 먹인 옷처럼 상시 땀뻘하고 빛깔도 연한 갈색을 보여 더 없이 좋은 노동복이 되지만, 자주 이용할 수록 풀기도 없어지고 빛깔도 거무태태한 흑갈색으로 변해 버린다. 작업을 할 때 땀이 나도 몸에 붙지 않는 다던가, 먼지가 쉬 타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어, 노동복으로 남자가 가리지 않는다. 오늘날은 제주의 민속 문화를 대표하는 자리에까지

46) '갈증의', '갈적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47) 풋감의 즙이 가장 많이 나는 계절인 음력 7월말에서 8월 초순경에 작업을 한다. 감물을 처음 들이면 검오테태한 빛을 보이나 이를 햇볕에 4~5일간 말리면 연한 갈색을 띠게 된다.

오르게 되었으며, 개량 한복의 개발과 발 맞추어 생활 한복 및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더욱이 모시로 된 '적삼'과 '바지'에 감물을 드러 입게 되면 한 여름을 쉽게 날 수 있는 복식(服飾)이 되기도 한다.

(2) 정당벌립 — '정동벌립, 정동모자, 정동병짓, 정동병긋'이라고도 한다. 들밭이 많은 곳에서 자라는 '댕댕이덩굴'로 만든 것으로, 머리가 들어가고 이마가 닿는 부분인 '모자골'을 사용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차양(遮陽)을 넓게 하여 해 가림이 많이 되도록 하였다. 무성한 풀들 사이에서 우마(牛馬)를 돌보는 목자(牧者)들이 주로 사용하였는데, 소나비를 맞아도 안 썰 정도로 좀길게⁴⁸⁾ 짠것이 특징이나 좁은 무거운 것이 흠이었다. 오늘날은 관광 상품으로도 만들어 팔고 있다.⁴⁹⁾

(3) 대패랭이 — 마다가 거의 없는 제주 수리대를 세공(細工) 하여 만든⁵⁰⁾ 모자로서 '정당벌립'처럼 차양(遮陽)인 '천'을 넓게 하여 해 가림이 많이 되도록 하였다. 대을 사이로 통풍(通風)이 잘 되도록 하였으며 가벼우므로 남녀노소(男女老少)가 즐겨 이용한다. '대패랭이'란 대나무를 재료로 만든 '패랭이'를 뜻하는데, 밀대나 보릿대로도 만든 것은 '밀낭패랭이', '보릿낭패랭이'라고 불렀다. 다양한 모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오늘날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⁵¹⁾

48) '잘고 가늘게 짜였다'는 제주 지역어(地域語)다.

49) 관광 상품인 '정당벌립'은 재료를 '댕댕이 덩굴'로 사용한 것은 같으나 형태는 전통적인 것과 아주 다르다.

50) 같은 대나무를 재료로 하였다고 해도, 대의 어느 부분으로 만든 것이냐에 따라 그 가치가 구분되었다. 대나무의 바깥 부분인 '피죽'으로 만든 것은 탄력이 있고 외형도 아름답다워 상품(上品)으로 쳤고, 속껍질로 만든 것은 여리고 썩기 쉬울 뿐만 아니라 탄력도 떨어져 하품(下品)으로 쳤다. 진성기, 『제주민속의 멋』1(열화당, 1980), pp35~36.

51)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패랭이'를 성산 지역에서 만들어 '민속촌' 등에서 판매하기도 하였다.

(4) 삿갓 — ‘지삿갓’이라고도 하는데, ‘모자’와 ‘차양’으로 구분되던 ‘정당벌립’이나 ‘대패랭이’와는 달리 ‘꼬갈형’을 하고 있다. 또 꼬갈의 정상 부에 종이를 덧대어 차양(遮陽)의 효과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재료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여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내부에 ‘망’을 붙여 머리가 들어가고 이마에 걸리도록 하였다. 보통 농가(農家)에서 1~2개씩 갖추었다가 여름철 사용하였다고 한다.

(5) 우장 — ‘잡세기⁵²⁾, 도롱이, 우의, 츄갱이’라고도 한다. ‘나막신⁵³⁾과 ‘정당벌립’을 함께 쓰고 우마(牛馬)를 돌보는 옛 사진이 전해 오고 있는데, 주로 비바람이 심한 날 바깥에서 작업할 때 주로 입었다. 띠(矛)로 가늘게 새끼를 꼬아 그물 모양의 틀을 만들고, 많이 비를 맞더라도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깥에 띠를 엮어 나가는데 띠의 끝이 하단(下端)을 향하도록 하였다. 통풍이 잘되는 헛마루의 기둥이나 헛간 등에 걸어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하였다. 오늘날은 비닐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이 완전히 사라진 민속품 중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6) 말, 되, 홉 — 곡물의 양을 재는 데 썼던 도량구(度量具)로, 크기에 따라 네 가지가 사용되었다. 말<斗>을 측정하는데 썼던 것으로, ‘통말’과 ‘귀말’이 있었다. ‘통말’은 원통형(圓筒形)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인 ‘굽’과 몸통인 ‘천’, 천의 가장자리인 ‘바위’로 이루어진 반면, ‘귀말’은 사각형(四角形)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되<升>를 측정하는데 썼던 것으로 ‘뒷박⁵⁴⁾이 있었는데, ‘귀말’을 줄여 놓은 것과 같

52) 泉淸一, 『濟州島』(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66), p.216.

53)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인 곳을 나다닐 때 신었던 신이다. 벗나무, 고련목 등 가벼운 나무로 사용하는 사람의 발 크기에 맞도록 만들었는데, ‘코’는 올라가게 만들고 뒷꿈치는 돋우었으며 바닥의 ‘굽’은 평행이 되도록 하였다. 남녀용의 구별은 없었으나 여자의 것을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었다.

은 모습을 하고 있다. 또 되<升>의 반을 재는 데 썼던 것으로 '반상'이 있어 사용되었으며, 이 보다 작은 것으로 '흙'이 있는데, 오늘날 오일장(五日市場) 등에서는 소량의 종자 등을 파는 데 사용하고 있다.

(7) 약도리 — '약돌기'라고도 하는데, 물건을 담아 매거나 걸 수 있도록 된 주머니 같은 것을 말한다. 산덕짚보다 길긴 '왕꿀' 등으로 가늘게 새끼를 꼬아서 엮었다. 아외용 도시락⁵⁵⁾을 넣어 짊어지고 다니는데 편리하였다. 크기의 차는 있었으나 사냥을 나가거나 목야지에서 우마(牛馬)를 돌볼 때 흔히 사용하였다.

(8) 장낫 - '장호미'라고도 하는데, 목축(牧畜)을 전문으로 했던 동부 지역의 중산간 마을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길게 자란 풀을 한꺼번에 많이 베어 들일 때 썼다.⁵⁶⁾ '즈룩'과 '낫'이 크고 길어 사용하는 사람이 서서 벨 수 있도록 하였다. '즈룩'은 작은 것이 165cm정도이고, 큰 것은 182cm정도에 달하였다. 그리고 '즈룩'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 '낫'을 설치한 다음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고정시켰다. '낫'의 길이가 60cm정도로 보통의 '호미(20cm)'보다는 훨씬 긴 편이었다. '즈룩'의 재료는 질긴 것이어야 했으므로 가시나무 등을 이용하였다. 성산, 남원, 서귀 등지에서 주로 썼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것으로 동쪽

54) '뒷박' 중에 관(官)에서 승인하여 곡물의 매매 등 공적(公的)으로 사용한 것에 사용했던 것을 특별히 '관뿔, 관상'라고 하여 일반적인 것과 구분하였다.

55) 전래적인 도시락으로는 '밥차롱'이 있다. 이는 농번기 때 여러 사람들이 밭으로 일하러 갈 때 밥을 담아 가는 대오리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것이지만 소형의 것으로 '동고리, 동고랑' 등도 있다.

56) 이 밖에 '벌초(伐草)'할 때도 사용했었다. 출베는 일은 많은 힘을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는 격렬한 노동은 아니지만, 장시간에 걸쳐 지루하게 이루어지는 피곤한 노동이었다. 그러므로 이 때에는 노동의 지루함을 극복할 목적으로 '출베는 소리'가 불려지곤 하였다. 조영배, 앞의 책, p.231.

지역인 '종달리'에서는 '낮호미'라 하여 긴 '즈록'에 짧은 '매호미'를 달아 속성수(速成樹)인 밀감 밭 방풍림의 가치를 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3. 마무리

문화는 쉬지 않고 변화한다. 물론 농경도 변화해 왔고 그 속에서 생을 다하던 농기구도 변화해 가고 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쓰이다가 언젠가는 그 생을 다하기도 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해 나타나기도 한다. 지금까지 밭농사 중심의 제주도에서 사용되어 왔던 전래 농기구에 대해 살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따뜻하고 습기가 많아 잡초가 자라기 좋았던 특성과 밀림(密林)을 형성할 수 있었던 여건을 안고 있고, 화산의 폭발로 이루어진 화산도(火山島)로 자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화산회토(火山灰土)의 토양을 가지고 있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제주적 특징은 식수 수급이 용이했고, 토양이 비교적 좋았으며, 오일장(五日市場) 등 상업의 발달, 도로의 건설 등으로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었던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어촌(漁村)이 발달한 특징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제주에서 농기구가 갖는 특성은 자갈이 많았던 밭을 경작했던 특징이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섬'이 넓으면 잘 끊어지지 않으므로 좁고 가늘게 했으므로 형태적으로 뾰족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날카로운 정도로 뾰족한 '따비'와 '뱀줄래', '굴갱이', '약초쟁이'가 특히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부는 비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말테', '남테', '돌테'로 파종한 밭을 밟아 주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십여 마리의 말이나 소를 밟아 밀

어 넣고 가장자리부터 밟아 나왔던 전통은 쉽게 구할 수 없었던 말뚝의 효과를 위해 나무토막으로 말발굽을 만들고 나무토막에 박아 밟아 주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바람에 날리는 흙을 막아 주고, 점성이 없는 화산회토(火山灰土)로 습기를 잘 보관할 수 없었던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며, 밟을 파헤쳐 종자를 파먹던 새들의 막을 수 있는 지혜였기도 했다. 한편 바람을 이용하여 탈곡한 알곡을 검불 등과 구분하여 정선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솔박'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지계의 발이 특히 짧았던 것도 들이 많았던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밟을 개간하면서 발생하는 돌들을 밟담을 담으면서 경계를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밟담'을 넘어 다니기 위해 '지계 발'을 특히 짧게 할 수밖에 없었으며, 한 여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나무로 만들어 사용하였던 '섬피'를 담이 많은 밟을 옮겨 다니면서 사용하기 어려워 한 번 사용하면 화목(火木)으로 사용해 버렸던 특징도 나타난다. 또 하나의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름답리 목재(木材)를 이용한 '남방에', '도구리' 간 혹은 '하리' 하지만 '두리' 등의 농기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성 기후의 온난 다습한 기후는 밀림(密林)을 형성하였고, 아름답리 나무를 많이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하게 한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가 자라 어른이 되고 문화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인젠가는 늙어 죽어 가듯이, 개인의 삶은 물론 지역이나 민족 문화의 변화도 쉬지 않는 것이다. 물론 농경도 변화해 왔고 그 속에서 생을 다하던 농기구도 변화해 가고 있다. 물론 농기구가 주체가 되어 생기고 사라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쓰이다가 그 생을 다하기도 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물질문화를 통한 연구의 가치가 밝혀지게 되

는 것은 아닐까? 간략하고 서둘렀던 논의는 별도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봉, 「제주의 언어」(1), 제주문화, 1997.
 高光敏 外, 「濟州의 民俗」(2), 濟州道, 1994.
 고영기 外, 「제주도」, 뿌리깊은나무, 1983.
 金光彦, 「韓國農機具攷」,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金東燮 外, 「濟州道の 農機具」,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7
 朴虎錫, 「東.西洋쟁기의起源과發達」, 忠北大大學院博士學位論文, 1988
 裴永東, 「호미에 관한 일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7
 張壽根外, 「農耕文化」(2), 경기대학교박물관, 1992
 전라남도농업박물관, 「圖錄」, 전남남도농업박물관, 1994
 濟州道農村振興院, 「濟州農事方言, 俗談集」, 濟州道農村振興院, 1991
 조영배, 「우리고장 전래민요」, 도서출판예술, 1996
 좌혜경편, 「제주섬의 노래」, 학연문화사, 1996
 주강현편, 「북한의 민속학」(재래 농법과 농기구), 역사비평사, 1989
 秦聖麒, 「濟州民俗의 멋」(2), 열화당, 1992
 玄容駿 外, 「濟州道文化財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1973
 玄容駿 外,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島篇), 文化財管理局, 1974